

新聞學報

第14號|1981年

韓國新聞學會

新聞學報

제 14 호

1981년

차례

- 5 사회 연구 방법론과
비판 이론적 신문학 연구방법방 정배
- 35 TV의 제발 효과에 관한 연구오 두법
- 71 한국 언론 제도의
구조에 관한 서술적 고찰원 우현
- 105 언론 체제의 사회 열역학적 해석...최 동식
- 127 국가적 특성과
언론 통제도의 상관 분석적 연구...추 광영
- 163 동·서 커뮤니케이션 모형...Joseph Woelfel

- 193 학회 사업일지
- 197 신문학회 정관
- 203 신문학회 회원 명단

신문학보 제 14 호는 문교부와 문화공보부로부터 학술 연구조성비를 지원받았다.

新聞學報 / 第 14 號

西紀 1982 年 5 月 20 日 印刷

西紀 1982 年 5 月 25 日 發行

編輯兼發行 / 韓國新聞學會

印刷處 / 平和堂印刷株式會社

新聞學報 第14號에 관한것은 서울特別市 城東區 杏基洞 17 義陽大學校 新聞學科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 커뮤니케이션 모형 (An East-West Model of Communication)

Joseph Woelfel/New York 주립대학교수

김영석 · 이종영 공역*

1. 서론

지난 십여년간 동양 학자들로부터 제반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에 대한 비판의 물결이 높아져 왔으니, 그것은 서양학자들에 의해 고안되어진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동양적 맥락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이 비판들은 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동양적 경험에 의한 것과는 달리, 서구적 경험과 서구적인 개인적 관점에서, 범주(categorie)개념을 사용하여 세계를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 논문은 동양 및 서양 사상 원리에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이론은 단일의 우월적인 세계관을 배격하고 다원적 방법에 의해 인간의 경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특정한 개인 혹은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기호(symbol) 및 개념들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사용하는 특정한 개인적·문화적 관점(perspective)의 견해(viewpoint)로부터 인간경험을 도식화(mapping)하는 방법을 개발해 보자는 것이다.

본 이론은 우리의 경험을 다차원공간(multidimensional space) 혹은 다차원 연속체(continuum)로서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이 다차원 공간내의 특정 지역 혹은 주위 영역(neighborhood)들은 어떤 개념들(concepts) 혹은 “대상(objects)”들을 나타낸다. 이러한 개념 혹은 대상의 의미는 다차원공간내의 모든 다른 개념들과의 상대적인 거리(distance)의 유형에 의해 주어진다. 개념의 의미 변화는 다차원 연속체에서의 개념들의 운동(motions) 상태로 설명된다. 사실상 서로 다른 두 개인 혹은 문화가 똑같이 경험의 공간(space of exp-

* 김영석 · 이종영은 현재 숙주립대학에 재학중임

erience)¹⁾을 규정하지는 않으므로, 본 이론은 어떤 특정 경험공간의 주위영역(neighborhood or region)을 규정하기 위하여 그 특정문화권에서 사용되는 개념 혹은 대상들을 식별해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하여 개념 혹은 대상들이 밝혀지면, 대상들간의 상대적 거리 및 차이의 정도를 계량적 수치 측정 방법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 측정 방법은, 리커트척도(Likert scale)나 의미분별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e)와 같이 범주(categorical) 개념을 사용하는 재래식 서구측정방법과는 달리, 인간경험의 크기(예를 들어, meter, feet, inch)를 측정하는데 있어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비례율 방법(ratio-rule method)을 사용하므로 동·서양 학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타당성(validity)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이론은 동서양의 모든 학자들에게 똑같이 잘 이해될 수 있는 수학이라는 공통언어를 사용하여 주요 전제 및 명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일개 특정국어를 사용하여 씌어진 이론들이 가질 수 있는 편견(biases)들을 피하기 위함이다.

결국 이 이론은 정확한 측정 방법(measurement system)과 강력한 수리 해석학(mathematical calculus)의 방법에 따른 것으로 동·서양 학자들 모두에게 동등한 적합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2. 동·서양의 관점

지난 수년간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간에 동·서양 문화체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문화간(intercultural) 커뮤니케이션의 이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상호이질적인 두 관점을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서양학자들이 동양권에 접하였을 때 그 시각의 다양성(diversity)에 놀랐듯이 동양학자들도 서양의 여러 다양한 사상을 접하면서 유사한 느낌을 갖는다고 한다.

양문화권에 존재하는 이러한 다양성 혹은 차이 때문에 동서양의 관점(perspective)을 포용해서 서로 접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나오게 되

1) 본 연구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공간(space)이라함은 우리의 인식공간(Cognitive Space)을 지칭한다.

었다. 본 연구논문은 이렇게 동·서양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뿌리를 두고 있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이다.

본 이론의 목적은 개인 및 문화권이 갖고 있는 태도와 신념체계를 설명하고 그 태도와 신념체계가 개인 및 문화권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는가를 설명하려는 데 있다.

서구에서 발전되어 동양권에 적용되어 왔던 여러 이론들은 역할 태도(role attitudes)와 신념체계(beliefs)가 어떤 개인 및 문화권의 행위형태를 결정하는 주요인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이 태평양연안의 아시아 문화권에 적용되었을 때는 그들이 안고 있는 서구적 편견 때문에 동·서양학자들에 의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본 이론은 동·서양의 관점들에 의해 공유되는 기본 전제들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 문화권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고 본다. 본 이론은 동서양 사상에 있어서의 몇몇 학문적 조류(lines of inquiry)들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칹(Cheng, 1981)이 설명하는 중국철학원리, 물리학, 수학, 사회학 등에서 발전된 관점들이 그것이다. (사회학에서는 특히 Durkheim의 전통과 Maller, Sewell, Mcphail, Kuhn, Blumer, Denzin 등의 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상징적교호 작용론자들의 이론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이론들을 종합해 보면 동·서양 모두의 관심사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일관성있고 유용한 이론적틀(theoretical model)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본 이론이 동·서양의 사상체계를 완전히 종합하는 것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미래의 동·서 문화권간에 학문적 교류를 위한 하나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찾을 수 있는 것이다.

3. 기본 전제

Cheng(1981)과 Woelfel and Fink(1980)는 그들 이론적 원리를 기술하는 숫자 및 용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철학적 기본 전제에서는 일치점을 찾아 볼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데 이 전제는 중국적인 시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미국적인

시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들간의 상이함은 다음과 같은 그들 제각기의 기본적인 철학원리에서 연유하는 것 같다. 즉 Cheng은 중국 커뮤니케이션 철학의 세가지 기본원칙으로서 “무한 해석의 원리(the principle of infinite interpretation)”, “상대적 상대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relative relativization)” 그리고 “절대적 상대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absolute relativization)”를 들고 있는데 반해 Woelfel and Fink는 동일한 내용의 하나의 원리로 되어진 일반적 이태아로서의 Born(1965)이 말하는 상대화의 원리(The principle of relativization)를 들고 있다.

표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 원리의 근본 핵심은 우리 인간 경험(human experience)이 수많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각각의 방법들은 그들의 관점내에서는 모두 타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러한 원칙은 인간경험의 성격을 변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원칙들이 타당성을 갖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Woelfel and Fink(1980)는 이와 관련하여 동·서양의 커뮤니케이션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일련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 원리들이 어떤 논리나 경험에 의해 요구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 원리들을 채택하였을 때 수반되는 여러 장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원리들은 위에서와 같이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본 이론에서는 동·서양의 전통에 부합될 수 있는 세가지 일반적 성향(orientations)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인간경험이 그들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 질 수 있다고 보는 상대론(relativism)의 공통적 근거이다. 둘째는, 동·서양의 전통에 동일한 문화적 근거를 가지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통적 측정규정(common measurement rule)의 채택이다. 셋째는, 본 이론을 표현·전개하는데 있어서 동서양이 공유하는 언어의 문제로서, 동·서양이 똑같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 언어의 채택이다. 본 이론은 그 출발점을 공유적 인식론적 원칙(shared epistemological principles), 공통적 측정규정(common measurement rules), 그리고 공용언어(common language)에 두기 때문에, 동·서양 모두에게 상호접근이 용이하며 또한 상호 유용한 이론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4. 기본 개념

(1) 대상(Object)

본 이론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대상”(object)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어떤(개인적 혹은 문화적인) 의식이 인지하고 있는 심리적 내용물(psychological content)을 가리킨다(Woelfel, 1972). 여기서 “대상”이라는 용어는 돌, 의자, 사람 등등의 “물리적 대상”(physical object)에만 국한 시킬 필요는 없다. 이 이론에서의 “대상”이란 Herbert Blumer(1966)가 말한 바와 같이 “지칭되고 언급될 수 있는 어떤 모든 것(anything which can be designated or referred to)”를 포함한다. 상대화의 원칙에 따르면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것을 그 구성분자들로 나누는 방법은 무한하기 때문에 경험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단하나의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상이한 문화권이나 동일 문화권 내의 서로 다른 개개인들이 그들의 경험을 나타내교자 할 때 서로 다른 대상들을 통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주지해 온 바이다.

(2) 신념(Belief)

상대화(relativization)의 원칙에 따르면, 대상(object)을 정의하는 과정은 대상들을 서로서로 관련시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과정은 대상들간의 유사성(similarities) 및 상이성(differences)에 중점을 두는 일이다. 본 이론에서 “신념”이라함은 어떠한 개인이나 문화권이 인식하는 어떤 두 대상들간의 관계물[내면화하는 과정들] 말한다.

(3) 자아 개념(Self Concept)

인간경험에 있어 가장 특수한 형태의 대상(object)은 “자아(self)”라고 일컬어지는 대상이다. 자아를 대상으로 규정할 때 주의할 점은 이러한 개념규정으로 자아가 객관화되거나 자아의 과정적인 성격(procassual character)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자아를 하나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아라는 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항상 그 상황의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나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자신의 자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4) 태도(Attitude)

자아의 정의, 즉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과정은 자아를 제외한(개념상의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다른 대상들과의 관계 형성을 의미한다. 자아와 다른 대상들간에 형성된 관계 하나하나가 바로 자아에 대한 신념을 나타낸다. 본 이론에서는 이러한 자아에 대한 신념을 “태도”라 일컫는다. 그렇다면 자아란 Mead(1934)가 말한 바와 같이 어떠한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일련의 태도들의 응결체라 정의할 수 있다.

(5) 자아 개념의 정의

어떤 대상들을 서로 관련시키는 이 과정을 서구에 있어서는, 특히 범주화(Categorization)의 과정으로 생각하여 왔다. 이것은 Blumer(1958)의 다음과 같은 글 속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명백한 점은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사건(event)을 인식하거나 지각할 때 우리는 생활의 과정에 있어 범주화의 행동(an act of categorization)을 개입시킨다는 점이다. 즉 지각된 사물들(things)을 어떤 범주 속에 넣어서 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있을 때, 그는 “정직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휴식을 취하려는” “의도”에서 “유유자적하게” “걸고 있다”는 등으로 묘사된다. 단어들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섞여진다고 학습해온 어떤 암시(cues)들에 입각하여 입력되는 자극(stimulus input)들을 분류(sorting)하거나 배치(place-ment)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범주화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함축적 의미는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직 대해 보지 않은 어떤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범주화라는 개념은 어떤 집합체의 개별적 구성원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공유적특성(shared characteristic) 및 일군의 특징들을 기초로 어떤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범주지향적인 성향(orientation)이 일반적인 성향을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이나 문화는 이 범주의 구성 대상들에 준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념적 연결(conceptual linkages)의 중요성은, 범주라는 단어자체가 의미하는 것처럼 불연속적, 명목

적(discrete, nominal)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 개념적 연결과정이 설명되는 안된것만에, 간과되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과정이 우리의 조직화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만일 범주화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접할 때마다 항상 새롭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개인들의 일상행위는 자아와 대상을 항상 새롭게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히 수반되는 물건의 관계 규정을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 완전히 창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Blumer(1966)가 주장하고 있듯이 어느 정도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개개인의 행위는 어느 정도 독특하다 그러나 개인 행위의 독특성(uniqueness)도 동일한 문화권내의 비슷한 환경적 맥락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의 행위들이 갖고 있는 유사성의 정도 안에서 고려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들어 버스를 탄다든지, 적을 사고 신발을 신어보고, 혹은 강의를 듣는다는 등의 가장 간단한 사회적 업무활동은 그 업무활동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구조라든지, 그 상황에 처해있는 대상들의 사회적 개념규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상황에 있는 요소들간의 상호관계 등을 우리가 사전에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새롭게나 이질적인 대상을 접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이 갖고 있는 구성요소의 여러 특징들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해 있는 특징을 통하여 그 새로운 대상을 파악하거나 해석하려 한다. 예를 들어 그 대상이 푸른색인가 노란색인가, 큰가 작은가, 생물체인가 무생물체인가 하는 등등을 살피게 된다. 사실상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일반적인 성인 개개인이 모든 면에서 전혀 생소한 대상을 접하게 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설혹 있다 하더라도 “어떤 미지의 것”이라는 범주가 모든 문화권에서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미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이 범주가 새로운 대상에 대한 개개인의 성향과 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모든 범주들이 동일한 일반성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특정한 대상을 하나의 개별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범주화의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이것은 인식과정의 생리적 메카니즘을 형성하는 불연속적 자극(discrete stimuli)들이 인간 유기체(organism)에 충격을 주는 순간 자극의 총합체(totality of stimuli)로부터 분리되어 하나 하나의 개별적 사상의 대상으로서 규정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범주라는 것은 외부에 대한 노출이 실제상으로는 연속체(continuum) 가운데 임의의 한 부분을 분리시켜 그것을 “인식(perception)”이라 지칭한다. 이러한 일부의 사례는 대상과 인식간에 존재하는 개념의 간섭작용(interposition)을 극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지만, 이러한 예는 자아내에서의 최저 범주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각의 “대상 범주(object-categories)”는 좀더 일반적인 범주의 일개 구성요소이고 이 좀더 일반적 범주는 또한 더 일반적 범주의 구성요소가 되어 최종적으로 “물체(material)” 혹은 “존재하는 것(Existing)”과 같은 가장 일반적 범주에 까지 도달하게 된다. 주어진 하나의 범주를 일정한다고 볼 때, 이 범주의 위계(hierarchy)상에 있어서 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떤 개인이 자기 자신이나 외부세계에 대하여 갖게 되는 개념규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위에서 언급된 자아 개념을 규정하는 과정에 관한 설명들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하지만 깊숙히 들어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몇몇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가장 명백한 첫번째 사실은 인간 경험을 범주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경우(특히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는 쌍방이 서로 이질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살아 왔을 경우),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혼동 및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각각의 문화는 그들 문화권내의 집합적 경험(collective experience)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분해시켜 보게 되는 데,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들이 그들의 공통경험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범주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서로 다른 범주들의 적용에서 야기되는 차이점 때문에 문화권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동양문화권내의 사람들도 인간경험을 인위적으로 세분시켜 범주화하여 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려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면 부드럽게 흐르고 있는 경험의 연속체(continuum)에 범주화된 불연속적 세부구조를 적용시켜, 연속적인 인간 경험을 불연속적인 범주개념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 경향인 것 같다.

범주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원적 가치(two-valued)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특정 대상이 어느 한 범주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거나 혹은 인식되지 않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엄밀한 의미의 이원적 가치 기능은 인간의 인식과정에 있어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Blumer의 범주 개념에 관한 설명은 매우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직하다”는 개념이 정말 범주적인 개념이라면, 외부 관찰자에 의하여 정직하다고 분류된 두 개인은 그들의 정직성의 정도에 관한한에는 구별될 수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직하다”라고 분류된 그 개념 속에도 연속적인 변화의 진폭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부분의 문화권에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연속적 변화의 범위가 특정 개인이나 문화권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동을 취하는데 대한 기초를 마련해 주고 있다. “건넌다”, “여유있게”, “의도”, 혹은 “휴식을 취하면서” 등등의 각각의 범주개념들도 그들 각각의 범주내부에는 변화의 범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 자신도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화도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성(manhood)”적 성격을 보여주는 정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범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식과정이 아니고 그 인식과정을 묘사하는 언어(language), 특히 서구의 심리학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Whorf(1956)는 이 범주화 과정을 어휘정제(lexation)과 같은 작업의 한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험의 전체적 다원성 가운데 일부분을 명명(giurp names)함으로써 전체 중에서 명명된 일부만이 반가상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영어에서의 “하늘(sky)”이라는 단어가 “널판지(board)”같은 모습으로 생각되는 것과 같이, 비교적 고립된 강체들(solid bodies)에만 적용될 수 있는 단순한 시각적 형상으로서만 우리는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

“인력”과 “늑”같은 단어들은 그것이 갖고 있는 지면의 고도나 토양 성분 등의 부분적인 변차(variation)를 외자와 책상들과 거의 같은 어떤 특정한 형상을 지닌 모습으로 그리게 한다. 각각의 언어는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어떤 존재의 연속적인 전개와 흐름을 인위적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색깔있는 두 물체를 “노랑다”라고 식별하였을 경우, 이

러한 분류가 이 두 물체는 동일한 것이다(심지어 색깔에 관하여도)라는 생각을 그 관찰자에게 주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노랑다라는 동일한 언어적 범주를 사용하여 묘사될 수 있을 만큼 두 물체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시각적 색깔 식별 범위는 4000에서 6400 옹거스트롬(Ångstrom)이라 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은 아주 미세한 옹거스트롬의 색깔 차이도 식별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일상에는 이러한 모든 미묘한 색깔의 차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만큼 색깔의 용어들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 언어 사용자들의 표현(그리고 전통적인 서구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 표현)으로는 대중 근사치에 가까운 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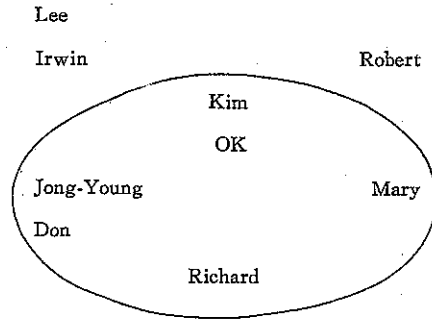
(6) 연속적 분류체계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전통적 범주체계(category system)들은 문화간(cross-cultural) 커뮤니케이션 이론의 정립에 두 가지 큰 문제점들을 야기시켜 왔다. 첫째, 상이한 문화들이 그들의 경험을 서로 다르게 범주화하여 왔기 때문에 문화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많은 혼동과 오류가 있어 왔다. 둘째는, 우리의 어떠한 범주체계는 분명히 식별가능한 서로 다른 경험들을 어떤 동질의 더 큰 범주체계에다 포함시킴으로서, 그 정밀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일반적인 범주개념은 “어느 정도 비슷한(similar enough)” 모든 대상물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 감각의 생리학적 한계들을 생각해 본다 해도, 그 어떠한 대상들도 결코 동일할 수는 없다. 상대성의 원칙에 의하면 범주들간의 경계들은 뚜렷하고 명확한 것으로는 절대로 생각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관찰자들에게 그 경계들이 동일하게 인식된다는 것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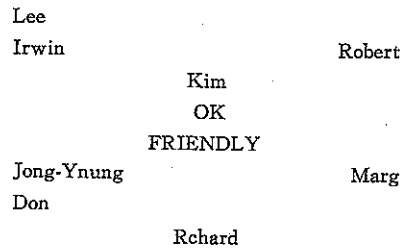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1]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전통적인 서구식의 범주적 견해를 나타내 준다.

이 그림에서 원안의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다고 간주되는 반면에, 원밖의 사람들은 그 아무도 친절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전통적인 서구의 범주적 견해는 여러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첫째는 원으로서 뚜렷하게 그어진 것 같이 그렇게 범주간의 경계가 선명한 것

〔그림 4-1〕 경계화된 범주로서의 친절성(Friendliness)



〔그림 4-2〕 연속적 거리로서의 친절성



으로 생각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관찰자들에 따라서 어느 곳에 원을 그어야 할지, 얼마나 크게 혹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야 하는지, 원의 모습을 꼭 해야 하는지 하는 등등에 관한 의견들이 다 다르다는 점이다. 셋째, 제각기의 관찰자들은 [그림 4-1]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상대적으로 서로간에 어떻게 위치시켜야 하는가에 관하여 의견이 각기 다를 것이다.

반면에 [그림 4-2]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야기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앞서와 똑같은 경험들을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림 4-2]에서 “친절하다(FRIENDLY)”라는 개념 혹은 대상은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의 이름들과 같이 공간 속에 한 대상으로서 표시되어 있다. 이 경우 각 사람들의 친절한 정도는 그 각각의 사람들과 “친절하다”라는 단어와의 거리로써 나타내진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두

려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이름이 공간내의 “친절하다”라는 대상으로부터 멀리 위치하게 될수록 그 사람에게서 인식되어지는 친절성은 그만큼씩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2]도 사실은 우리의 인식공간(cognitive space)을 너무 단순화한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한 관찰자나 문화에 따라서 “친절하다”라는 단어가 이 사람들과 어떠한 상대적 위치에 놓여져야 하는지 그리고 각 사람들의 이름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 이름과 상대적인 위치에 놓여야 하는지 하는 등등에 관한 의견에 일치할 보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문제점이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을 각 관찰자나 각 문화에 상대적으로 위치시켜서 보는 다차원적 인식공간의 지도(multiple cognitive maps)를 통해 보기 때문이다. 범주적 표현방법과는 달리 이 다차원 공간지도들은 각각의 차원에 따라 서로 중복되어 표시되기 때문에 각 이름 혹은 “대상”은 그것을 나타내는 점(point)들의 집합(swarm or cluster) 형태로 나타내진다. 여러 관찰자들간의 의견의 차이는 그들 각 개인의 인식공간지도(personal cognitive map)상에 있어서의 대상들의 위치가 상이한 것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상이한 문화들이 갖는 관점들의 차이가 그 문화 구성원들 모두의 인식공간에 있는 대상 점들의 평균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야기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다.

(7) 주위 영역(neighborhood or domain)

각 문화에 따라 혹은 그 문화내에서도 특정한 개인들에 따라, 심지어 동일한 개인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인식공간에 있는 대상들의 위치가 다양하게 변한다고 볼 때, 실제적 의미의 근거(basis of meaning)로서 좀더 근사하고(approximate) 현실적인 견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주위영역(neighborhood)”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는 어느 주어진 개념 및 대상이 “주로(usually)” 위치하고 있는 전체공간(global space)내의 일반화된 한 지역이나 부분을 의미한다. 사실상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정의할 때는 이 공간내에 존재하는 모든 다른 대상들과의 총체적인 관계들을 통하여 정의하지만 그 대상의 실제적인 의미는 그 대상 주위의 가까운 이웃들과의 거리관계에 의한 효용근사치로서 나타내진다.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떤 개념을 정의하시오

라고 질문하였을 경우 그들은 그 개념과 대개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일군의 동의어들이나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응답을 한다.

본 이론의 논리에 따라라면 이렇게 나열된 대상 및 개념들은 우리가 규정해야 할 문제의 개념과 인식의 전체 공간(global cognitive space)상에서 상대적으로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부근지역(subregion)은 개념의 “주위영역”을 규정한다.

이 이론에서 잘 나타나 있는 또 하나는 “위계개념(notion of hierarchy)”이다.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영토나 지역을 큰 단위 혹은 작은 단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문화공간(cultural space) 내의 지역이나 주위 영역개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동반구(Eastern Hemisphere)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서 단순히 “동양(the Eas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일본, 중국, 동경, 서울, 심지어 어느 특정 동네, 어떤 집의 특정한 어느 방 등등의 보다 세부적인 지역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문화공간내의 큰 영역을 묘사할 경우, 예를 들면 하나의 대상으로서 “감정(emotion)”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것을 좀더 세분화시켜 “사랑” “미움” 등과 같은 더 작고 특수한 주위 영역으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사랑”이라는 특수한 주위 영역도 이 부근의 구조를 살펴보면 더 세분화 시켜 볼 수도 있다. 상대화의 원칙에 의하면 일반성을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표준(level)도 “올바른” 표준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서로 다른 표준(level)들을 갖을 수 있는데 그 각각의 표준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측정 (Measurement)

(1) Counting

본 이론에서, 어떤 특정한 개념의 정의를 위한 첫 단계는 그 개념의 주위영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개념들을 결정하는 일이다. 실제로 이러한 작업은 연구하고자 하는 문화권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비교적 자유스러운 인터뷰 형식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도록 질문을 하게 된다. 표본으로 추출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정

의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와 용어들을 제안하는 것이 그 다음단계작업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안은 Galileo(TM) word counter 프로그램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Woelfel, et al., 1980).

경우에 따라서, 주위 영역을 정의하는 주요 대상(혹은 개념)들의 결정은 비교적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들어 본 이론에서의 인간감정의 집합체들은 문화의 인식 공간내에서 주위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1977년,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 있는 22명의 응답자들(주로 아시아, 호주, 태평양군도 몇몇의 미국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본원적인 인간감정들을 열거하도록 질문하였더니 11개의 감정요소들이 한번 이상씩 언급되었다.

1981년 봄에는 뉴욕주의 행정수도인 Albany 대도시 지역에서 50명의 전화가입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인간의 주요기본 감정들이 무엇인가를 묻는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10개의 감정개념들은 하와이에서 실시하여 얻었던 11개의 인간 감정 요소들 가운데 10개와 일치되는 것들이었다. 물론 10개나 11개보다 더 많은 감정요소들이 있겠지만, 이 10개의 감정요소들은 인간감정의 주위영역을 연구하는 “주요개념들(landmarks)”로서 제공될 것이다.

(2) Clustering

어떤 경우에는 일군의 핵심적 주요개념 대상(landmark object)들의 결정이 더욱 어려울 때가 있다. 이것은 응답자들이 유사한 대상들을 기술하기 위하여 비교적 의미가 비슷한 동의어나 동의구문들을 사용하였을 경우 특히 그렇다. 이 경우에도 단순히 응답자들이 언급한 단어들의 빈도수를 셈하게 되면 잘못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아이디어가 여러가지 표현의 단어나 어구들로서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현된 용어들의 유사점에 관한 정보가 각 단어들의 단순 빈도수 외에 더 주어져야 한다. 보통은 이에 관련된 두 가지 절차가 사용된다. 한가지 절차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동일한 인터뷰에서 동일한 응답자들에 의해 기술된 용어들은 대체로 그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발생 언급되는 경향과 비례하여 유사한 하나의 집합체(cluster)의 형태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Johnson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각각의 인터뷰(혹은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각각의 단어 출현 빈도수를 계산하여 “단어 ×에피소드” 행렬 (matrix)을 만들면, 이 “단어 ×에피소드” 행렬을 이 행렬의 치환행렬 (transpose matrix), 즉 “에피소드 × 단어” 행렬의 앞에서 곱함으로써 “단어 × 단어” 공변량 행렬 (covariance matrix)을 구한다. 여기서 구해진 “단어 × 단어” 공변량 행렬은 보통 Johnsons Hierarchical Clustering 프로그램과 같은 diameter-method clusterig 프로그램에 입력 (input) 되어 Cluster들을 출력 (output)하게 된다. (우리는 Cluster들 가운데에서 주요개념들 (landmarks)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표 5-2 참조])

1981년 봄 Albany의 뉴욕주립대학 대학생 51명에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10가지를 열거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Galileo word counter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답한 103개의 단어 및 구문들을 밝혀 냈는데, 그 중의 40개는 한번 이상씩 언급된 것들이다. 이 자료들은 Johnson 컴퓨터프로그램에 넣어져 여러 중요한 cluster들로 분류되었다. 표 5-1은 단어 및 구문들의 빈도표를 나타내고 표 2는 이 단어 구문들이 이루고 있는 cluster들을 보여준다.

[표 5-1] 51명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103개 단어 및 구문들의 출현빈도 표

| 〈빈도 표〉 | | | 〈Alphabetical order〉 | | |
|--------|----|---------------|----------------------|---|---------------|
| 번호 | 빈도 | 단어 및 구문 | | | |
| 1 | 19 | Love | 86 | 1 | Adventure |
| 8 | 14 | Food | 20 | 6 | Air |
| 21 | 11 | Water | 25 | 1 | Altruism |
| 50 | 10 | Family | 103 | 1 | Animals |
| 30 | 9 | money | 88 | 1 | Art |
| 22 | 8 | Health | 36 | 1 | Atom |
| 5 | 7 | Self | 44 | 2 | Automobile |
| 24 | 7 | Knowledge | 11 | 1 | Awareness |
| 27 | 7 | people | 39 | 1 | Birth Control |
| 33 | 7 | Communication | 63 | 1 | Brain |
| 20 | 6 | Air | 101 | 1 | Caring |
| 23 | 5 | Shelter | 51 | 1 | Cat |
| 67 | 5 | Happiness | 60 | 1 | Cell |
| 73 | 5 | Friends | 92 | 1 | Cheesecake |
| 7 | 4 | Sun | 66 | 1 | Choice |

| | | | | | |
|----|---|------------------------|----|----|---------------|
| 31 | 4 | music | 9 | 1 | Clothes |
| 42 | 4 | (mate) | 33 | 7 | Communication |
| 56 | 4 | (Human) | 47 | 1 | Compassion |
| 10 | 3 | Telephone | 91 | 1 | Computer |
| 15 | 3 | Sex | 74 | 1 | Consideration |
| 28 | 3 | Feelings | 96 | 1 | Constitution |
| 32 | 3 | Life | 26 | 1 | Cooperation |
| 34 | 3 | Education | 14 | 1 | Death |
| 41 | 3 | (Thoughts) | 68 | 1 | Dictionary |
| 52 | 3 | (Thought) | 54 | 1 | Diversity |
| 53 | 3 | Feeling | 77 | 2 | Dreams |
| 58 | 3 | Security | 29 | 1 | Drink |
| 4 | 2 | Literature | 37 | 1 | Earth |
| 6 | 2 | Others | 34 | 3 | Education |
| 12 | 2 | Universe | 17 | 1 | Efficiency |
| 38 | 2 | Fire | 98 | 1 | Emotions |
| 44 | 2 | Automobile | 95 | 1 | Enjoyment |
| 45 | 2 | Job | 2 | 1 | Escape |
| 76 | 2 | Trust | 13 | 1 | Existence |
| 77 | 2 | Dreams | 85 | 1 | Experience |
| 78 | 2 | God | 50 | 10 | Family |
| 80 | 2 | Nature | 53 | 3 | Feeling |
| 87 | 2 | Humans | 28 | 3 | Feelings |
| 2 | 1 | Escape | 38 | 2 | Fire |
| 3 | 1 | Power | 81 | 4 | Food |
| 9 | 1 | Clothes | 61 | 1 | Friend |
| 11 | 1 | Awareness | 73 | 5 | Friends |
| 13 | 1 | Existence | 81 | 1 | Goal |
| 14 | 1 | Death | 78 | 2 | God |
| 16 | 1 | Goodness | 16 | 1 | Goodness |
| 17 | 1 | Efficiency | 67 | 5 | Happiness |
| 18 | 1 | Maslows Need Hierarchy | 59 | 1 | Harmony |
| 19 | 1 | Skiing | 46 | 1 | Hate |
| 25 | 1 | Altruism | 22 | 8 | Health |
| 26 | 1 | Cooperation | 94 | 1 | Home |
| 29 | 1 | Drink | 69 | 1 | Honesty |
| 35 | 1 | Success | 56 | 4 | Human |
| 36 | 1 | Atom | 87 | 2 | Humans |
| 37 | 1 | Earth | 43 | 1 | Intelligence |

| | | | | | |
|----|---|------------------|-----|----|-------------------------|
| 39 | 1 | Birth Control | 45 | 2 | Jobs |
| 40 | 1 | Trees | 75 | 1 | Kindness |
| 43 | 1 | Intelligence | 24 | 7 | Knowledge |
| 46 | 1 | Hate | 55 | 1 | Language |
| 47 | 1 | Compassion | 32 | 3 | Life |
| 48 | 1 | Nuclear weapons | 4 | 2 | Literature |
| 49 | 1 | Nick | 1 | 19 | Love |
| 51 | 1 | Cat | 18 | 1 | Maslow's Need Hierarchy |
| 54 | 1 | Diversity | 42 | 4 | Mate |
| 55 | 1 | Language | 57 | 1 | Mental |
| 57 | 1 | Mental stability | 30 | 9 | Money |
| 59 | 1 | Harmony | 72 | 1 | motivation |
| 60 | 1 | Cell | 31 | 4 | music |
| 61 | 1 | Friend | 80 | 2 | nature |
| 62 | 1 | wheel | 90 | 1 | newspaper |
| 63 | 1 | Brain | 49 | 1 | nick |
| 64 | 1 | Religion | 48 | 1 | nuclear |
| 65 | 1 | Science | 6 | 2 | Others |
| 66 | 1 | Choice | 79 | 1 | Peace |
| 68 | 1 | Dictionary | 27 | 7 | People |
| 69 | 1 | Honesty | 102 | 1 | Plant Life |
| 70 | 1 | Space | 3 | 1 | Power |
| 71 | 1 | Time | 99 | 1 | Relationship |
| 72 | 1 | Motivation | 64 | 1 | Religion |
| 74 | 1 | Consideration | 100 | 1 | Respect |
| 75 | 1 | Kindness | 84 | 1 | Satisfaction |
| 79 | 1 | Peace | 65 | 1 | Science |
| 81 | 1 | Coal | 58 | 3 | Security |
| 82 | 1 | Sleep | 5 | 7 | Self |
| 83 | 1 | Woman | 97 | 1 | Senses |
| 84 | 1 | Satisfaction | 15 | 3 | Sex |
| 85 | 1 | Experience | 23 | 5 | Shelter |
| 86 | 1 | Adventure | 19 | 1 | Skiing |
| 88 | 1 | Art | 82 | 1 | Sleep |
| 89 | 1 | Springtime | 70 | 1 | Space |
| 90 | 1 | newspaper | 89 | 1 | Springtime |
| 91 | 1 | Computer | 35 | 1 | Success |
| 92 | 1 | Cheesecake | 7 | 4 | Sun |
| 93 | 1 | Thursday nights | 10 | 3 | telephone |

| | | | | | |
|-----|---|--------------|----|----|-----------------|
| 94 | 1 | Home | 52 | 3 | Thought |
| 95 | 1 | Enjoyment | 41 | 3 | Thoughts |
| 96 | 1 | Constitution | 93 | 1 | Thursday nights |
| 97 | 1 | Senses | 71 | 1 | Time |
| 98 | 1 | Emotions | 40 | 1 | Trees |
| 99 | 1 | Relationship | 76 | 2 | Trust |
| 100 | 1 | Respect | 12 | 2 | Universe |
| 101 | 1 | Caring | 21 | 11 | Water |
| 102 | 1 | Plant Life | 62 | 1 | Wheel |
| 103 | 1 | Animals | 83 | 1 | Woman |

103개의 단어·구문들 가운데 Cluster analysis는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은 8개의 주요개념들을 밝혀내고 있다.

이 cluster들은 근본적인 주요개념대상들로서 간주되는데 이것은 주위영역이 응답자들에게 정의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이다. 주위 영역이 정의된 후에 따라 주요개념대상들을 뽑아내는 또 다른 절차는 다음의 가정에서 출발한다. 즉, 두개의 용어나 구문들의 상호 유사한 정도는 그들 각각의 동시 출현의 빈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서울, 동경, 마닐라, 시카고, 런던의 TV내용 분석연구에서 Barbara Newton 교수 연구팀은 황금방송시간대(prime-time)에 방영되는 TV 극화물에서 나오는 156개의 성격할 개념들(sex-role concepts)의 출현빈도간의 평균 시간을 산출해 내었다. 이 평균 시간간격 행렬들(average interval matrixes)은 앞에서 언급했던 Johnson프로그램과 같은 hierarchical clustering프로그램이나 혹은 직접 Galileo(TM) multidimensional scaling프로그램에 넣어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3) 주요개념들의 조사(landmarks survey)

위에서 언급된 counting 및 clustering 절차의 근본목적은 정의된 개념의 주위영역 안에 있는 주요개념들(혹은 "landmarks")을 밝혀내는 데 있다. 물론 이 개념들이 주위영역안의 모든 의미있는 개념들을 포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주요개념들은 응답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주요 대상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개념들은 마치 측량사들이 어떤 지역을 실제측지할 하기전에 현지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잡아놓는 말뚝들과 같은, 준거대상물(reference objects)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 나타나는 번호들은 표 5-1의 것들과 상응하는 것들임)

$$S = \begin{pmatrix} S_{11} & S_{12} \dots S_{1j} \dots S_{1k} \\ S_{21} & S_{22} \dots S_{2j} \dots S_{2k} \\ \vdots & \vdots & \ddots & \vdots \\ S_{p1} & S_{p2} \dots S_{pj} \dots S_{pk} \\ S_{k1} & S_{k2} \dots S_{kj} \dots S_{kk} \end{pmatrix}$$

(4) 주요개념들의 의미 확정

의 감정은 다른 감정들과의 유사성 및 상이성의 정도에 따라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numbering system)로서 나타내질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두 개념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 하고 생각되는 경우 이 둘간의 상이성의 정도는 영(0)으로 주어질 수 있고, 상이성의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두 개념의 비례적 증가수치들이 주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 개념의 정도는, 개념들간의 상이함 혹은 “차이(difference)”(단, 여기서 $s(i, j)$ 는 개념 i 와 개념 j 간의 의미의 차이(의 정도) 즉 그 개념에 해당되는 개념들로부터 나타낼 수 있다.) 만일 k 가 k 까지 변한다면(여기서 k 는 모든 주요대상 혹은 개념의 수) 이 $(1 \times k)$ 배터는 어떤 특정 시간 때 있어서의 i 번째 개념의 완벽하고 정확한 정의의를 나타내 준다 만일 k 가 어떤 특정 주위영역에 있어서의 주요개념들만을 나타내다며

벡터 $s(i, j)$ $j=1, k$ 는 그 주위 영역에 있어서의 i 번째 개념의 정확한 정의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벡터 $s(p, j)$ $j=1, k$ 도 다른 k 개의 개념들에 대한 p 번째 개념의 정의임을 나타내 준다.

결국 i 와 j 가 다같이 1에서 k 까지 변한다고 하면, 결과는 모든 k 개의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상호관련되어 정확히 정의될 수 있는 하나의 행렬(여기서는 정방행렬(square matrix) $s(i, j)$)로서 나타내질 수 있다([주 2] 참조). 따라서 이 이론에 의하면 행렬 $s(i, j)$ $i=1, k, j=1, k$ 는 어떤 특정 시간 t 에 있어서의 k 개념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정의 방법의 주요장점은 범주식의 방법(categorical schemes)을 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점이다. 범주식의 방법에서는 두 개념들을 비교할 때 두 개념이 같은 범주의 하나로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유사한가 아닌가를 판단하여 의미를 정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본 이론에서는 두 개념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가 하는 정도가 정확히 나타내질 수 있다.

실제로 두 개념들간의 거리의 수치(numerical estimates)는 물리적 거리 측정방법과 똑같은 절차의 비례척도(ratio-scaling)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관심대상의 모집단에서 추출된 응답자들에게 개념의 “표준화된 한쌍(criterion pair)”을 제시하고 그 표준거리의 비례로써 주위 영역상에 있는 모든 대상(혹은 개념)들의 한쌍(pairs)들과 이 표준거리의 비율적 차이를 비교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실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한다.

“만일 A와 B가 u단위 만큼 서로 떨어져 있다면, x와 y는 몇 단위 만큼 서로 떨어져 있을까?”

이러한 척도 방법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이 방법이 갖고 있는 비제한적 형식(unrestricted form)은, 정보를 2, 5, 7, 10 등등의 범주로 국한시켜 제한적 척도에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전통적인 서양식척도 방법들(예를 들면, Likert scale, 의미분별척(Semantic Differential Scale) 등등)에 비해, 보다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둘째로, 이 방법은 인류가 일상적으로 “물리적” 개념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있는 방법과 같아 동서양 문화권 모두에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또한 그 사용 논리나 방법이 이미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권간의(cross-cultural)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보다 정확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화권이란 의미는 비단 동서양 문화권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과학(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등등)의 문화권도 포함한다. 이 방법은 형식에 있어서 자연과학의 기본적 측정방법과 동일하므로 이 방법의 채택은 사회과학자들과 자연과학자들간의 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척도 방법의 운용(operation)에 관한 세부사항들은 다른 문헌들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Woelfel, et al., 1980; Woelfel and Fink, 1980 참조). 또한 이 방법은 이미 아시아, 태평양지역과 서구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간에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Kincaid, et al., 1981; Newton et al., 1981).

(5) 문화

사회과학에 있어 문화의 의미는 풍부하나 분명치 못하다. 넓은 의미로써 이 용어는 대개 어떤 집단의 신념, 가치관, 태도, 옛기물, 복장 스타일, 주거형태, 결혼의 유형 등등을 포함하는 사실상의 모든 측면(aspect)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 이론에서는, 다소 제한적 의미로써, 이 용어가 순전히 어느 한 사회의 인지적 측면(cognitive aspect)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본 이론에서의 문화란 어느 한 사회의 전체적인 인지구조(complete cognitive structure)를 가리킨다. 또한 문화적 변천(cultural process)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인지구조의 변화라고 간주한다.

한 문화의 신념체계나 태도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문화권내의 개개인 구성원들간에 상당한 차이(variability)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화의 개념이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개개인의 신념체계나 태도들은 상호 수렴되어 다소 밀착된 집합체(cluster)를 이룰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단지 그 문화권에서 수렴된 견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 수렴된 의견의 핵심이 그 문화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력(constraining force)을 행사한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 문화의 중심적 신념체계에 위배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규범에 맞게끔 재조정하도록 하는 강제력이 발동하게 된다.

이러

한 강제력은 어떤 일부의 문화적 기관(cultural agency)에서 행사하는 의식적인 의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Durkheim(1951)이 다음과 같이 지적했듯이, 몇몇 사람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한다.

“한편, 우리의 모든 내부적 삶(internal life)은 그 기본적 자료(primary material)를 내적 삶이 없는 데에서(from without) 구하게 된다. 순수한 불확정적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의식을 성찰해 볼 수는 없다. 의식은 의식자체가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 비로소 결정되게 된다.”

이 말을 좀더 풀어서 이야기 하자면, 생각할 어떠한 대상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문화는 개인의 사고를 그 문화유형에 맞게끔 강요한다. 왜냐하면 문화자체가 개인이 사고를 형성하는데 필요로 하는 정보의 본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 문화에 속해있는 두 구성원이 동일한 정보원(source)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받는 경우, 그들의 사고와 행위가 유사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없는 사실이다. 비록 한 문화에 속해 있는 개개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위는 제각기 다르다고 하겠지만, 그 주어진 문화를 유형화하는 “평균적” 사고 및 행위유형은 항상 존재한다. 이 “평균적” 문화는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평균행렬(average matrix) s 로서 나타내질 수 있다. 여기서 s 의 각각의 요소 $s(i, j)$ 는 대상(혹은 개념) i 와 j 간의 거리 혹은 상이함의 산술적 평균 개념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그 문화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구한 값과 동일한 것이다. Durkheim(1951)은 또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세론의 경향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집단은 결혼율이 더 높다든지 더 낮다든지, 자살율, 혹은 출산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든지 낮다든지 하는 것을 규정짓는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사회적 사실(social facts)들이다. 언뜻보기에 이 사회적 사실들은 개개인의 경우들을 모두 취합한 형태와 불가분의 것인 것처럼 보인다. 사실, 통계치란 사회적 사실들 개개의 평균치를 제시해 줄 뿐인데 실상 이 수치들은 놀랄만한 정확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출산율, 결혼율, 자살율 따위의 수치들은 연 평균 총 출산, 결혼, 자살 빈도수를 출산, 결혼, 자살이 행하여지는 연령층의 인구수

로 각각 나누어 구한 값인데, 이 평균치 즉, 사회적 사실³⁾은 어느 특정 집단의 집합의식(l'ame collective)의 상태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문화적 개념들간의 거리의 평균 행렬을 “문화”라고 한 것은 그 문화 구성원들의 신념체계, 행위 등이 지향하고 있는 “평형위치(Equilibrium position)”를 규명하고 하는 것이다. 물론 평균이란 평균치로부터의 개개의 편차의 합이 영(0)이라는 점에서, 수학적인 중심경향을 가리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떤 분포에 있어 평균이란 그 분포의 균형점(balance point)이라 볼 수 있다.

6. 문화 변동(Cultural Change)

평균이 문화의 중심경향이라는 개념은 문화변동의 수리모형(mathematical model)에 있어 중요한 함축적 의미를 갖는다. 아주 간단한 예로서 두 문화 A, B는 앞에서 정의된대로 그 문화의 각 구성원들간의 신념체계의 평균치들로서 모형화될 수 있다. 즉 A의 평균은 개개인의 신념체계 $a(i)$ 의 합을 신념체계의 수 N_a 로 나눈 값과 같고, B의 평균 역시 B문화권에 있는 개개인의 신념 $b(i)$ 의 합을 신념의 수 N_b 로 나눈 값이다.

이 두 문화가 상호 교류 할 경우에는 각 문화의 평균이 새로운 공통적 평형점, 평균 AB 로 이동할 것이다. 즉

$$AB = (N_a \times A + N_b \times B) / (N_a + N_b)$$

여기서 $N_a + N_b = N_{ab}$

Woelfel and Haller(1970), Saltiel and Woelfel(1974), Danes, Hunter, and Woelfel(1978) 등의 연구결과를 본 이론이 실험 및 조사자료들을 충분한 허용오차 내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어느 다른 그럴듯한 이론들 보다는도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Durkheim은 경험주의적 입장에서 사회적 사물(social thing)이 경험적인 사회적 사실(social fact)들로서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7. 문화 역학(Cultural Mechanics) : 문화적 변천의 수리모형 (A Mathematical Model of Cultural Processes)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문화들간의 접촉에 있어서 본 이론이 제시하는 요점은 거리개념을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거리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의 역학 부문에서는 거리 유형의 정보(distance-type information)에다 특정한 수학적 처리를 가하는 것이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알아 내었다. 이 수학적 처리의 핵심은 주축을 중심으로 한 좌표계의 주축변환(principal axes transformation)이다. 평균 거리 행렬의 스칼라적(積)(eigen vectors)의 합, 즉 고유벡터(scalar product)들로 이루어지는 주축(principal axes)은 각 대상 혹은 개념들이 투사(project)되는 좌표계를 구성하게 된다. 이 공간내에서는 원래의 모든 측정치들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이 공간에서의 어떤 두 개념간의 거리는 평균 거리 행렬에 있어서의 거리와 동일하다(woelfel and fink, 1980, 참조).⁴⁾

그림 7-1은 뉴욕주 Albany 도심지역에서 추출된 표본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인간 감정(Human emotion)의 주위영역에 있어서의 인식공간의 첫번째 주축 평면 즉, 두 개의 첫번째 고유벡터(the first two eigenvectors)들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평균거리 행렬에 있어서의 인간감정들간의 관계를 정확히 가깝게 시각화해 주고 있다.

[그림 7-1] Figure 7-1. First Principal Plane of the Emotions Neighborhood

| | |
|---------------------|---------------------|
| ANGER | LOVE |
| JEALOUSY SADNESS | YOURSELF HAPPINESS |
| FEAR | SELPRESERVATION JOY |
| HATE | |

4) 이러한 수학적 이론들의 이해를 위한 참고서들

1) 선형대수(Linear Algebra Vector Analysis)의 교과서

2) Goldstein, Classical Mechanics(고전 역학)

자료를 이러한 방법으로 재배열하는데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계산들을 단순화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각각의 고유벡터(eigenvector)에 관한 함수들이 다른 모든 고유벡터에 관한 함수들과 독립적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문화변천을 좌표계상의 점들의 운동으로 나타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물리학이나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 개발된 여러 지식들을 문화변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쉽게 채택·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군의 여러 학자들(Kincaid, et al., 1980; Woelfel, et al., 1980; Barnett, 1980; Cody, 1980 등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반 물리학적 변화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방정식들이 본 이론에 의해 모형화된 문화변천연구에도 잘 맞아 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이론에 관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이 한편의 연구논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일이지만, 몇몇 아이디어들은 문화간 연구에 관심이 있는 학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흥미로운 것이 될 것이다.

(1) 학습(Learning)

지식을 상이한 대상들을 판별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본다면, 본 이론에서는 지식의 증가를 대상들을 서로서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증가로 정의할 수 있으며 반대로 망각은 이러한 분별력의 호러짐으로 나타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이론에서는 이러한 분별력이 거리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학습은 인식공간이나 주위영역의 전체적인 크기의 증가로 나타내질 수 있고 망각은 그것의 축소로서 나타내질 수 있다. 한편 인식공간의 전체적인 크기는 이 모형에서 쉽게 계산되어 진다.

(2) 견해(Point of View)

본 이론의 시발적 전제는 인간 경험이 관찰자의 견해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관찰자나 문화의 견해들은 전체적인 인식공간이나 주위영역내에서의 그들 각각의 자아점(self-point)들의 위치로서 나타내진다. 제 3자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제 3자의 견해에서 경험을 관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이론에서는 이러한 변환(transformation)을 회전(rotation)과 전이(translation)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순전히 개인적 혹은 문화적인 견해차이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지각작용의 비근원적 차이를 변환에 의해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은 본 이론이 문화간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점의 하나라고 하겠다.

(3) 문화 변동(Cultural Change)

어느 한 시점에서의 문화의 상태가 인식공간 내에서의 문화적 대상들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주어지는 이상, 문화변동은 인식공간을 통한 대상들의 운동(motions)의 형태로서 모형화 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다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문화공간 내에서의 운동이 물리적 공간을 통한 제반 물리학적 운동법칙(laws of physical motion)의 귀납적 결과들(generalizations)에 유용한 허용오차내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물리학적 자연의 법칙들을 문화변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본 이론이 갖는 또 하나의 매력이다.

(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이론에서는 서로 다른 두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그들 간의 평균을 평형점(Equilibrium point)으로 하여 그 평형점에 수렴하려는 경향을 나타낼 것이라고 본다. 공간적 배열(spatial array)에 있어서의 이 과정은 물리학의 고전역학(classical mechanics) 부문에서 다루어지는 감쇠조화진동자(damped harmonic oscillation)에 관한 미분방정식(differential equation)의 일반화들로서 모형화 된다. 이에 관한 초기의 연구결과(Kincaid, et al., 1981)는 이민집단에서 관찰된 바 이민에 따른 문화적 신념체계의 변화현상이 이 미분방정식들에 의해 유용한 허용 오차내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5) 설득(Persuasion)

본 이론은 어떤 주어진 문화공간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과 아울러 문화변동을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다. 발전지향적인 설득적 메시지 전략을 위한 정확한 수리적 방법절차들이 동서양의 맥락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본 이론에 근거하여 활용되어지고 있다. (Chin, 1980; Cody, 1980; Woelfel,

et al., 1980) 이 방법들은 가족계획사업, 영양설취 및 식품 보건에 관한 사업 등등의 대규모 변동노력에 특히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결어

이 한편의 연구논문으로는 이렇이러한 이론적 맥락 속에서 이제까지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는가 하는 개략적 서술 이상의 것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기본적 수준에서 비교적 쉽게 설명된 Woelfel, et al., (1980)의 저서, 그리고 보다 고급수준에서 본 이론을 다루고 있는 Woelfel and Fink(1980) 등의 저서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이론의 궁극적인 장래를 짐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만 수십편의 초기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궁극적인 성과가 무엇이 되든간에, 본 이론을 연구하는 동서 학자들간의 교류와 이해증진은 커다란 가치가 있을 것이나.